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과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권기영* · 이기영** · 이수희***¹⁾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 서울대학교 대학원***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and their instructional culture

Kwon, Ki-Young* · Lee, Ki-Young** · Lee, Soo-Hee***¹⁾

*Home Economics Tea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me Economics(HE) teachers'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and their instructional culture, and to find out correlations between them, 21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r research showed that the preferences of HE teachers with respect to curriculum perspectives were in the order of the interpretive, emancipatory, and technical perspectiv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cy among findings in the preferences for the sub-elements of a curriculum. Second, our results indicated that HE teachers performed their role affirmatively in terms of instructional culture such as the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the 'class focused on student', and the 'learning materials preparation'.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ive elements such as the 'cooperation among teachers' between the HE teachers' curriculum perspectives and their instructional culture. Fourth,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4 factors of 'instructional culture' between the teacher group whose curriculum preference was clear and those group whose curriculum preferences was vague.

Key words: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가정과 교사(Home Economics teacher), 수업문화(instructional culture)

1) 교신저자: Lee, Soo-Hee, San 56-1 Sh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Tel: 02-880-9052, Fax: 02-880-0710, E-mail: kywonk@unitel.co.kr

2) 본 논문은 2011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양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국내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개혁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사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가정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지원단, 가정과 교사 연수 등의 노력들을 해 왔으나, 무엇보다 먼저 가정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업의 주체가 되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수업에서 부족한 교사의 역량을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가진 다면성과 복합성을 고려한다면 수업과 관련된 제 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구성원들의 공유 문화, 즉 수업문화를 조망하는 일이 수업 진단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문화는 학교문화의 하위문화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내재한 문화를 말하는데, 수업과 관련된 모든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말이다(임진영, 최지은, 2010). 이는 구체적으로 수업 자료 준비와 수업 방식, 평가방식,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 믿음인 교육과정 관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류상희, 2000; 박명주, 유태명, 2001; 채정현, 1996). 따라서 교사가 가진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의 수업 관련 행동 양식인 수업문화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써 교육과정의 변화와 혁신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정과 교육과정은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수희, 2007). 즉,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학의 하위 영역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데에 초점을 두는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관점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유태명, 이수희, 2009).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혁신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은 변화하기 어렵다(유태명, 2006).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을 무시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은 실패에 이를 수 있으므로(류상희, 1999),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선호도 관련 연구(류상희, 1999; 박명주, 유태명, 2001; 백은희, 채정현, 1998; 채정현, 1996),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 가치관 관련 연구(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 교육과정과 교사효능감 관련 연구(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그리고 수업문화 관련 연구(고창규, 2005; 박종률, 2007; 임진영, 최지은, 2010)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교육과정 관점과 수업문화를 관련짓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사가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과 수업문화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 관점과 일관된 수업 실행 관련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의 경향은 어떠한가?

- 2)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실태는 어떠한가?
- 3)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가정과 교사 집단과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교사 집단 간 수업문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류의 준거를 Habermas의 인식론 등 철학에서 이끌어 내고 있다(김민환, 1992; 박명주, 유태명, 2001). Habermas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 관심-기술적 관심, 의사소통적 관심, 비판적-해방적 관심이 인식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관심들은 각각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행동을 유도하며 지식을 생성하게 하여 학문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관심과 학문, 지식, 인식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Baldwin, 1984; Yoo, 1999). 기술적 관심은 생존을 위한 환경에 대한 예견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행동, 의사소통적 관심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관심은 자아반성을 목적으로 이성적 행동을 취하게 한다. 이러한 관심은 각각 “How can we achieve X goal?”의 질문을 통해 경험분석과학, “What goal ought we establish?”의 질문을 통해 역사해석과학, “What action should we take?”의 질문을 통해 비판과학으로 학문을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최근의 교육과정 연구나 이론 모형 분류의 한 특징은 그 분

〈표 1〉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의 비교

구분 \ 관점	전통주의 관점	재개념주의 관점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	비판적/해방적 관점
학습자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선천적으로 현명하고 착하다. 비록 외부의 요소들이 그 과정을 도울 지라도,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잠재력에 의해 성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자주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 인간은 능동적이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
사회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사회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 현존하는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이 삶의 가치로 채택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화와 문화는 개인성을 방해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 서구 사회의 합리주의는 인식(knowing)의 주관성에 위배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 사회는 개인의 자주적 선택을 위해서 자극 및 대안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존재하는 데, 절대적으로 건전한 사회적 상황과 규범도 없고, 또한 불건전한 것도 없다. • 사회구성원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보호하는 데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내용과 지식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은 이전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축적된 정보로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생활경험과는 구별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다. • 지식은 고유한 자아를 실현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한 수단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은 인식된 내용(思考內容)과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과정(思考過程)으로 구성된다. • 지식은 실제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이다.
가정과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과 그 내용 속에 포함된 특정 기술을 숙달하는 데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사회에서 자주적·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에 초점을 두며, 또한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을 교사가 결정하는 지시적 교수방법과 수동적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 및 사고의 검토, 자기 표현을 위해, 교사의 지시가 없는 자유방임적인 학습환경을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인 분석, 문제해결력, 그리고 학생들이 발달함에 따라 교사의 지시 정도가 감소하는, 민주적 사회화 과정을 활용한다.

출처: Brown, 1978:8-11; 박명주, 유태명(2001); 이수희(1999) 인용

발달시킨다(유태명, 장혜경, 김주연, 김향아, 김효순, 2004).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Brown(1978)은 가정과교육과정을 관점 A(기술적 관점), 관점 B(비판적 관점), 관점 C(해석학적 관점)로 분류하고³⁾,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학습자, 지식, 사회, 교과 내용과 지식, 교육목적, 교수방법에 대한 관점을 비교했다. 또한 Baldwin(1984, 1989)은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을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 비판적(해방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Brown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Brown이 분류한 자아실현 교육과정 관점은 해석적 교육과정 관점, 실천적 추론 교육과정 관점은 비판적(해방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이수희(1999), 박명주와 유태명(2001)은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을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으로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지식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서 축적된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는 구별된다. 가정과교육의 목적도 그 내용 속에 포함된 특정 기술을 숙달하는데 있다고 본다.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사회발달이론과 대립되면서 비판받고 있다(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해석적 관점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를 선천적으로 현명하고 선하다고 보며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잠재력에 의해 성장한다고 본다. 지식은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가정과 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해석학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사회화와 문화는 개인의 개성을 방해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비판적-해방적 관점의 교육과정 관점에서 학습자는 자주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구성원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보호하는 데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헌해야 하며, 지식은 인식된 내용과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비판적, 해방적

교육과정 관점의 가정과 교육의 목적은 민주사회에서 자주적·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지식, 사회, 학습자의 개념은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며, 교육과정 관점에 의해 교과의 성격과 목표,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가정과 교사가 선호하는 교육과정 관점을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관점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 선호 관련 연구(류상희, 1999; 박명주, 유태명, 2001; 백은희, 채정현, 1998; 채정현, 1996)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교육과정 관점에 따른 다양한 변인인 주 거가치관(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이나 교사 효능감(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관점과 수업문화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2. 수업문화

학교문화는 학교구성원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은 물론 그들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원리나 규칙 혹은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학교 문화는 학교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 지각체계 내지는 인지방식이다(홍재호, 1999). 또한 수업문화는 학교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수업과 관련된 주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구성원들이 공유한 문화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내재한 문화를 말한다(임진영, 최지은, 2010).

수업문화는 수업 자료 준비와 수업 방식,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동료교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수업의 주된 주체에 해당되는 교사가 수업에 대해 어떤 인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업문화는 수업현상에 대해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미지, 기대, 평가, 관행, 규범, 상호작용 방식을 말하며, 이것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요인과 간접요인이 있다(이정선, 2002). 직접요인에는 수업 설계, 수업 진행, 주의 집중,

3) 이후에 Weade가 관점A를 기술적 교육과정 모형, 관점B를 실천적 추론 교육과정 모형, 관점C를 자아실현 교육과정 모형으로 명명했다(백은희, 채정현, 1998).

교수 기법,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되며, 간접요인에는 수업장학과 관련된 교사 학력, 태도, 교육철학, 교사 경력에 대한 전기적 (biographic) 상황, 사회문화 배경,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 학교 행정 및 업무 등이 해당된다(박태호, 2008).

수업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상위의 개념인 학교문화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학교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김영찬, 1995; 홍재호, 1999; 박수란, 최형심, 2000)에서는 학교문화의 개념과 학교 문화 분석, 학교 문화의 연구 경향을 밝혔다. 수업문화에 대한 연구는 수업문화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 고자 한 임진영과 최지은(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초등학교의 수업문화와 수업개선을 위한 교창규(2005)의 연구와 체육수업문화 분석의 박종률(2007)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영과 최지은(2010)의 연구에서 밝힌 수업문화의 8가지 요인-‘학생 중심수업’, ‘수업개선 지원’, ‘평가활용 수업’, ‘수업 중 학생행동’, ‘수업관련 교사지원’, ‘교사 간 협력’, ‘소극적 수업방식’, ‘수업자료 준비’ 중 행정적인 요인과 관련된 ‘수업개선 지원’, ‘수업관련 교사지원’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한 6가지 요인에 대하여 가정과 수업의 주체인 교사가 수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과 행동양식을 수업문화와 관련지어 살펴 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 교사들 중 전국가정교사모임, 가정교육학회, 가정교사 모임 카페에 가

입된 회원을 편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2010년 5월 17일에서 6월 21일까지 이메일, 우편, 직접 전달 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총 800부의 설문지 중 212부가 회수되었고(26.5%),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1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표 2> 참조). 예비조사는 2010년 5월 11일에 가정과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와 자료 분석

1) 교육과정 관점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박명주와 유태명(2001),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이 사용한 설문 문항 중 뜻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표현들을 찾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해 사용했다. 조사도구의 문항은 총 27개로 학습자에 대한 인식 9개 문항, 사회에 대한 인식 9개 문항, 가정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 성향을 묻는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동의한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의 생각이 그 관점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 수업문화 조사도구

수업문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임진영과 최지은 (2010)이 개발한 문항을 연구자가 수정해 사용했다. 조사도구의 문항은 총 47문항으로, ‘교사 간 협력’ 5문항, ‘평가활용

〈표 2〉 조사대상자의 배경

구분	배부수	회수	회수율(%)
전국가정교사모임 회원	300	68	22.7
가정교육학회 회원	100	22	22.0
가정교사 모임 카페 회원	400	122	30.5
계	800	212	26.5

수업' 8문항, '수업자료 준비' 8문항, '수업 중 학생행동' 9문항, '학생중심 수업' 9문항, '소극적 수업방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문화 실태를 묻는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이 중 '수업 중 학생행동' 영역과 '소극적인 수업방식' 영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학생 행동을 잘 통제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 하위 영역 안에서도 반대로 질문한 5문항은 코딩 시 점수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매우 그렇다'에 1점으로 역코딩 하였다.

3)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설문지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교수 2인, 박사과정 중인 중등 가정과 교사 2인, 석사과정 중인 중등 가정과 교사 3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가정과 교사 28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과학분야에서 Cronbach's α 가 0.6 이상이면 그 요인은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이종성, 남궁지영, 2008). 따라서 본 설문의 예비조사 결과,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 가 0.6 이상이므로 본 설문은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엑셀 파일에서 코딩한 뒤 SPSS/ win(version 12.0)에서 불러 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라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경향

1)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 경향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해석적 관점(M=3.92) 가장 높았고, 해방적 관점(M=3.75), 기술적 관점(M=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명주와 유태명(2001), 이연정, 조재순과 채정현(2007),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교과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숙달시키는 교과로 인식하기보다 학습자들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교육과정 관점별 하위 요소인 학습자, 사회, 교과지식에

<표 3> 설문지의 영역별 신뢰도

	영역	문항 내용	Cronbach's α
수업문화	1	교사 간 협력 요인	.632
	2	평가활용 수업 요인	.758
	3	수업자료 준비 요인	.628
	4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	.835
	5	학생중심 수업 요인	.876
	6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	.659
관점	기술적	기술적 관점	.755
	해석적	해석적 관점	.759
	해방적	해방적 관점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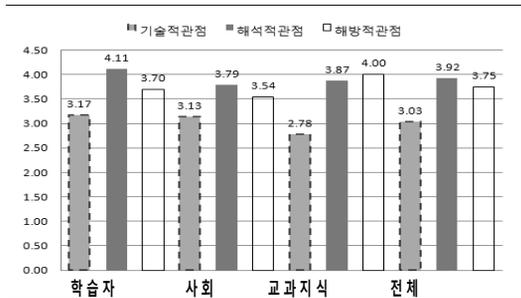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학습자와 사회 요소에 대한 선호도 순은 해석적 관점(M=4.11, M=3.79), 해방적 관점(M=3.70, M=3.54), 기술적 관점(M=3.17, M=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해석적 관점, 기술적 관점, 해방적 관점의 순으로 나타난 박명주와 유태명(200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 대한 선호도는 박명주와 유태명(2001)의 연구와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의 연구 모두 해석적 관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기술적 관점, 해방적 관점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방적 관점인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이 일부 도입된 것이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 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사료된다.

한편, 가정 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해방적 관점(M=4.00), 해석적 관점(M=3.87), 기술적 관점(M=2.7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백은희, 채정현, 1998; 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습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해석적 관점이 높은 것은 교사들이 학습자를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잠재력에 의해 성장한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해석적 관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존하는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성화를 방해하는 사회화나 문화에 대한 적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주적 학습자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과 지식에 대해서는 해방적 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최근의 교육의 동향인 구성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지식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 진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교육과정 관점 구성요소에 대한 문항별-관점별 성향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의 하위 구성요소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학습자에 대한 세 가지 관점별 평균점수는 해석적 관점(M=4.11), 해방적 관점(M=3.70), 기술적 관점(M=3.16)순이며, 특히 해석적 관점에서는 4.11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해석적 관점에 대한 문항이 모두 4점을 넘었으며, 특히 개별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피지 않은 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M=4.22)라는 항목은 해석적 관점으로 가정과 교사들은 비록 외부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학습자를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잠재력에 의해 성장한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갈 때 참여자보다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M=2.77)로 기술적 관점을 나타내는 항목이었다. 이것은 가정과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학습에 있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6)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가정과 교사들은 자주적 학습자관을 취함을 알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세 가지 관점별 평균 점수는 해석적 관점(M=3.79)이 가장 높았으며, 해방적 관점(M=3.54), 기술적 관점(M=3.13)의 순서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적 관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현존하는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성화를 방해하는 사회화나 문화에 대한 적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주적 학습자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나는 사회의 방향이 이성적인 대중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M=3.89)는 해방적 관점으로 사회구성원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공헌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사회가 가장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회는 인간에게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므로 학교는 이러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M=2.60)가 2점대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정과 교육의 목표가 7차 교육과정까지는 학생들이 미래사회



[그림 1] 교사들이 지각한 가정과교육과정 관점

〈표 4〉 교육과정 관점 구성요소에 대한 문항별 · 관점별 성향(n=210)

영역	관점	문항 내용	문항별 M(SD)	영역 M(SD)
학습자에 대한 인식	기술적 관점	나는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갈 때 참여자보다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2.77(0.83)	3.16 (0.64)
		나는 학생들은 현존하는 가치, 규범,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사회화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39(1.02)	
		나는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35(0.82)	
	해석적 관점	나는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09(0.62)	4.11 (0.53)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피지 않은 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4.22(0.60)	
		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편견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한다.	4.03(0.70)	
	해방적 관점	나는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갈 때 중립적인 관찰자 보다는 사회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3(0.90)	3.70 (0.58)
		나는 학생들이 사회 전반에 내재된 왜곡된 믿음을 비판하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71(0.71)	
		나는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기 보다는 이를 비판하여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7(0.63)	
사회에 대한 인식	기술적 관점	현재의 사회가 가장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회는 인간에게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므로 학교는 이러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60(1.08)	3.13 (0.74)
		나는 경험적·분석적 과학 지식을 사용하면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3(0.82)	
		나는 가족, 사회와 같은 여러 단체나 사회 조직은 국가의 생산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57(0.98)	
	해석적 관점	나는 인간의 생활세계는 “대화의 세계”이며,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에 이르는 것이 사회적 삶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3.80(0.66)	3.79 (0.46)
		나는 사회적 긴장 상태가 의사소통의 좌절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66(0.83)	
		나는 사회적 행동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이론은 그 사회·문화적 발달의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0(0.57)	
	해방적 관점	나는 사회의 방향이 이성적인 대중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3.89(0.56)	3.54 (0.49)
		지배세력은 역사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현대사회는 전문기술인 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3.05(0.83)	
		나는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그 사회의 구조와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깨달음을 통해 사회는 변화된다고 생각한다.	3.68(0.78)	
가정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	기술적 관점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옳고 그른 것이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2.84(1.11)	2.78 (0.69)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주로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3.01(0.92)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50(1.05)	
	해석적 관점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과거와 현재의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3.90(0.71)	3.87 (0.49)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한다.	4.06(0.67)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3.64(0.71)	
	해방적 관점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가정과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것이기에 가치 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4.03(0.74)	4.00 (0.51)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고정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진다고 생각한다.	4.31(0.67)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왜곡될 수 있기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66(0.80)	

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있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과 교사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보다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이끌고자 하는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교사의 지식에 대한 세 가지 관점별 평균 점수는 해방적 관점(M=4.00), 해석적 관점(M=3.87), 기술적 관점

(M=2.78)순이었으며, 학습자나 사회에 대한 인식에 비해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교사의 지식에 대한 세 가지 관점별 평균점수 해방적 관점(M=3.82), 해석적 관점(M=3.70), 기술적 관점(M=3.14)으로 나타난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의 결과와 일치하나, 기술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이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해방적 관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지식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닌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는 왜곡될 수 있기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고정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진다고 생각한다.”(M=4.31)라는 항목은 해방적 관점으로 지식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M=2.50)라는 기술적 관점을 나타내는 항목은 모든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정 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에서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이 모두 3점을 넘는 데 반해서 기술적 관점의 평균이 2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가정과 교사들이 교과 지식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점보다는 재개념주의 관점⁴⁾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도 순과 각 관점별 구성 요인에 대한 선호도 순이 다르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 역시, 백은희, 채정현(1998), 박명주와 유태명(2001), 이연정, 조재순과 채정현(2007), 그리고 최유정, 박미정과 채정현(2009)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가정과 교사들은 일관된 교육과정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실태

1) 가정과 교사들의 전체적인 수업문화 실태

가정과 교사의 수업문화 실태를 <표 5>의 결과를 기초로

전체적인 경향을 ‘교사 간 협력’, ‘평가활용 수업’, ‘수업자료 준비’, ‘학생중심 수업’ 등 긍정적인 요인과 ‘수업 중 학생행동’, ‘소극적 수업방식’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정과 교사들은 수업요인 중 긍정적인 요인인 ‘학생중심 수업’, ‘평가활용 수업’, ‘교사 간 협력’, ‘수업자료 준비’요인에서는 모두 3.5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얻었으며, ‘교사 간 협력’요인(M=4.10), ‘학생중심 수업’(M=3.85), ‘수업자료 준비’(M=3.72), ‘평가활용 수업’(M=3.63)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 요인 중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된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중 학생행동의 통제가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소극적인 수업방식’ 요인의 경우는 ‘학생중심 수업’의 적극적인 수업 양식 보다는 소극적인 수업 성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은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점수(M=2.89)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과 교사들은 여전히 강의 중심 수업을 하고 있으며(M=3.24), 수렴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며(M=2.9), 수업 활동과 평가활동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M=3.35)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 역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점수(M=2.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요인별·문항별 성향

가정과 교사의 수업문화 실태를 6가지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사 간 협력’ 요인은 총 5문항으로, “좋은 수업 참관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M=4.4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우수학습 지도안의 공유는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M=4.26), “다른 학교 및 교내 동료 가정과 교사(들)의 의견은 수업 준비 및 수업에 도움이 된다.”(M=4.14), “수업 연구에 대한 실행 경험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M=4.06)의 문항들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

4) 재개념주의 관점이란 탈역사적·탈가치적인 기존의 교육과정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탐구영역을 개인이 갖는 의식 문제뿐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문제에까지 넓혀 개인의 자주성 함양 및 사회적 해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관련을 지으면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을 가진 입장을 말한다(이수희, 1999).

로 다른 학교 및 동료 가정과 교사들의 활동과 수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항목의 점수는 교사 간 협력 요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교사들이 수업 자료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남윤진과 채정현의 연구(2008)에서 보여준 ‘동료 가정과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30.5%)’는 결과와 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가활용 수업’ 요인은 총 8문항으로, “학생평가에 지필형 평가만을 활용한다.”(M=4.39)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역코딩 문항으로 “학생평가에 지필형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의 의미가 된다. 또 “학생들의 학습지 작성 결과를 확인한다.”(M=4.10), “수업 참여도(발표)나 수업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M=4.09)의 문항들 역시 4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평가는 주로 정기시험을 활용한다.”(M=2.99) 문항 역시 역코딩 문항으로 “학생평가는 정기시험과 더불어 다른 시험 방식과 병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김효순과 유태명(1997)의 연구에서는 지필평가를 주로 실시하고, 서술형 문항보다는 객관식 문항을 주로 이용한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를 필수 평가 요소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업자료 준비’ 요인은 총 8문항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준비를 한다.”(M=4.23)와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교과서, 지도서뿐만 아니라 교과관련 전공서적과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M=4.21)가 근소한 차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수준에 적합한 예시를 찾는 것이 어렵다.”(M=3.08)는 역코딩 문항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수준에 적합한 예시를 찾는 것이 쉽다는 의미가 되며, “수업에 임박하여 가르칠 내용을 살피고 준비한다.”(M=3.43)도 역상관 문항으로 수업 전에 미리 가르칠 내용을 살피고 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상의 결과, 가정과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성실하게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윤진과 채정현(2008)의 결과에서도 가정과 교사는 수업개선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 중에서도 TV나 교육방송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종이(1997)의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데 반해, 김미영(2004)의 ICT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87%가 수업내용에 따라 ICT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매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또 김효순과 유태명(199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학습내용 부분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례와 그 적용 예들을 제시한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 전에 수업 지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것 역시 일치되는 결과이다.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은 총 9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수업 중 학생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킬 경우 수업 진도를 맞추기가 어렵다.”(M=2.98)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M=2.97), “학생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차질을 겪는다.”(M=2.92),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지속시키기가 어렵다.”(M=2.91)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는 긍정적인 수업 효과 및 교사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M=2.50)는 역코딩 문항으로 학생들의 소극적인 수업참여는 부정적인 수업 효과를 주며, 교사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의 결과,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 문항 중 학생의 준비부족으로 수업 진행에 차질을 받거나 학생 활동 위주의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주의 집중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등의 문항은 3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정과 교사들은 수업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중심 수업’ 요인은 총 9문항으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를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준다.”(M=4.02)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태도와 반응은 수업 구상에 도움이 되며, 학생의 반응에 따라 수업 방법을 모색한다.”(M=3.95), “학생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M=3.94),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설명방법을 선정한다.”(M=3.91), “학생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한다.”(M=3.86),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M=3.83) 등 대체적으로 평균 3.8 이상의

〈표 5〉 수업문화 중 교사 간 협력요인의 문항별 특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별 M(SD)	영역 M(SD)
교사 간 협력요인	우수학습 지도안의 공유는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	4.26(0.67)	4.10 (0.44)
	수업 연구에 대한 실행 경험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	4.06(0.80)	
	좋은 수업 참관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	4.42(0.55)	
	다른 학교 및 교내 동료 가정과 교사(들)의 의견은 수업 준비 및 수업에 도움이 된다.	4.14(0.66)	
	다른 학교 및 교내 동료 가정과 교사(들)의 활동과 수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3.59(0.95)	
평가활용 수업요인	수업 후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다.	3.34(1.10)	3.63 (0.62)
	모둠별로 학생을 평가하기도 한다.	3.29(1.12)	
	학생들의 학습지 작성 결과를 확인한다.	4.10(0.82)	
	수업 참여도(발표)나 수업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4.09(1.01)	
	단원별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	3.08(1.20)	
	학생평가에 지필형 평가만을 활용한다.(역상관)	4.39(0.82)	
	학생평가에 관찰평가와 지필평가를 병행한다.	3.79(1.02)	
수업자료 준비요인	수업 준비 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를 중시한다.	3.51(0.81)	3.72 (0.42)
	수업에 임박하여 가르칠 내용을 살피고 준비한다.(역상관)	3.43(1.041)	
	다양한 교수 방법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3.60(0.82)	
	중 단원 정도의 수업을 사전에 계획한다.	3.63(0.71)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교과서, 지도서뿐만 아니라 교과관련 전공서적과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4.21(0.70)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준비를 한다.	4.23(0.72)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수준에 적합한 예시를 찾는 것이 어렵다. (역상관)	3.08(0.97)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	평소에 교과 관련 전문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교과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본다.	4.05(0.69)	2.65 (0.61)
	학생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차질을 겪는다.	2.92(0.90)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지속시키기가 어렵다.	2.91(1.02)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97(0.97)	
	수업 중 학급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어렵다.	2.60(0.97)	
	학생들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수업진행을 어렵게 한다.	2.58(1.02)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87(1.09)	
학생중심 수업요인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킬 경우 수업 진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2.98(1.01)	3.85 (0.48)
	수업이 지식 전달 위주여서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	2.50(0.78)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는 긍정적인 수업 효과 및 교사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역상관)	2.50(0.79)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3.79(0.62)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고 반응을 살피는 데 능숙하다.	3.53(0.73)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	3.83(0.69)	
	학생이 공감하는 수업을 한다.	3.80(0.60)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	학생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한다.	3.86(0.77)	2.89 (0.53)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정한다.	3.91(0.63)	
	학생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3.94(0.63)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를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준다.	4.02(0.73)	
	학생들의 태도와 반응은 수업 구성에 도움이 되며, 학생의 반응에 따라 수업 방법을 모색한다.	3.95(0.72)	
	수업은 주로 교과서 위주로 설명한다.	2.73(1.04)	
	주로 강의식, 일제식으로 수업한다.	2.90(1.00)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	강의식 수업은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다.	3.24(0.78)	2.89 (0.53)
	수업에서 수렴형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	2.90(0.75)	
	수업의 많은 시간을 학생의 주의집중과 통제를 위해 사용한다.	2.43(0.84)	
	학생의 주의집중이 어려울 때는 학생에게 벌을 주어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통제한다.	2.70(1.06)	
	가정교과관련 기출문제는 교사의 수업 구성에 유용하다.	2.87(0.97)	
	평가 방식이 수업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3.35(0.88)	

높은 점수를 보여 가정과 교사들이 학생 중심 수업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김미정, 유태명, 1997; 김효순, 유태명, 1997)에서는 활동중심·사례중심의 수업과 토의 학습 및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 중심의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교육의 동향인 구성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소극적 수업 방식’ 요인은 총 8문항으로, 평균이 높을수록 소극적 수업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이 수업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M=3.35), “강의식 수업은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다.”(M=3.24), “수업에서 수렴형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M=2.90), “주로 강의식, 일제식 수업을 한다.”(M=2.90) 등의 문항이 이 요인의 평균 반응(M=2.8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 주입식, 암기식 학습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기순임, 채정현, 1998; 김효순, 유태명,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전히 소극적인 수업방식으로 가정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하위 요인들 중 ‘평가 활용 수업’ 요인을 제외한 다섯 요인-‘교사 간 협력’ 요인($F=11.31, p<0.001$), ‘수업자료 준비’ 요인($F=11.59, p<0.001$), ‘수업 중 학생 행동’ 요인($F=4.84, p<0.01$), ‘학생 중심 수업’ 요인($F=24.36, p<0.001$), ‘소극적 수업 방식’ 요인($F=15.50, p<0.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간 협력’ 요인을 예측하는 주요 설명 변인은 기술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 변인이었으며, ‘교사 간 협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기술적 관점($\beta=0.26, p<0.001$), 다음은 해방적 관점($\beta=0.19, p<0.05$)이었다. ‘평가활용 수업’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업자료 준비’ 요인을 예측하

는 주요 설명 변인은 기술적 관점 변인과 해석적 관점 변인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해석적 관점($\beta=0.35, p<0.001$)으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술적 관점($\beta=-0.19, p<0.01$)으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학생 행동’ 요인을 예측하는 주요 설명 변인은 해석적 관점 변인($\beta=-0.19, p<0.05$)으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해석적 관점($\beta=0.40, p<0.001$)으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문화 하위 요인들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R^2=0.26$). 마지막으로 ‘소극적 수업 방식’ 요인을 예측하는 주요 설명 변인은 기술적 관점 변인($\beta=0.33, p<0.001$)으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의 성향은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교육과정 관점 중 해석적 관점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해석적 관점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자료 준비’ 요인($\beta=0.35, p<0.001$)과 ‘학생 중심 수업’ 요인($\beta=0.40, p<0.001$)에 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공감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특성과 해석적 관점의 학습자, 사회, 그리고 교과지식에 대한 가정(assumption)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표 4>와 <표 5> 참조). 따라서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진 해석적 교육과정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수업 중 학생 행동’ 요인은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소극적 수업 방식’ 요인; $\beta=0.33, p<0.001$), 교사 자신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 수업을 하기(‘수업 자료 준비’ 요인; $\beta=-0.19, p<0.01$) 보다는 다른 교사들의 우수 학습지도안을 공유하거나 좋은 수업 참관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교사 간 협력 요인; $\beta=0.26, p<0.001$).

또한 본 연구에서, 해방적 관점의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실

〈표 6〉 수업문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교육과정 관점	수업문화											
	교사 간 협력		평가 활용 수업		수업 자료 준비		수업 중 학생행동		학생 중심 수업		소극적 수업방식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기술적 관점	0.20	0.26***	0.03	0.03	-0.14	-0.19**	0.10	0.09	0.08	0.10	0.31	0.33***
해석적 관점	0.18	0.16	0.18	0.11	0.38	0.35***	-0.30	-0.19*	0.50	0.40***	-0.21	-0.15
해방적 관점	0.21	0.19*	-0.05	-0.31	-0.06	-0.06	-0.07	-0.05	0.18	0.15	-0.12	-0.09
R ²	0.14		0.01		0.14		0.07		0.26		0.18	
F(sig)	11.31***		0.64		11.59***		4.84**		24.36***		15.50***	
Durbin -Watson	2.06		2.21		2.35		1.94		1.87		2.29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관점을 토대로 나눈 집단

	관점	군집(n)		t
		군집 1(137)	군집 2(73)	
군집의 관점 평균값	기술적 관점	3.30	2.52	12.75***
	해석적 관점	3.79	4.18	-7.91***
	해방적 관점	3.60	4.03	-8.37***

* p < .05, ** p < .01, *** p < .001

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30%에 불과한 이선미의 연구(2008)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해방적 관점이 일부 내재된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이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방적 관점에 대한 수업문화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관점 집단별 수업문화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을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집단-군집 1(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과 군집 2(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로 분류한 결과, <표 7>과 같다.

그 결과, 기술적 관점을 선호한 집단 내에서는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M=2.52)보다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M=3.30)이 기술적 관점을 더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석적 관점이나 해방적 관점을 선호한 집단(개념주의 관점을 선호한 집단) 내에서는 교육과정 관점이 분

명한 집단(M=4.18, M=4.03)이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M=3.79, M=3.60)보다 더 우세했다. 이 결과로부터 해석적 관점이나 해방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개념주의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기술적 관점(전통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보다 학습자, 사회, 가정교과 지식 등 교육과정 구성 요인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어진 집단별 수업문화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수업문화에 대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4가지 수업문화 하위 요인 즉 ‘수업자료 준비’ 요인(t=-4.04, p<0.01), ‘학생중심 수업’ 요인(t=-4.97, p<0.01),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t=2.82, p<0.01),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t=4.32, p<0.01)에서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과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가지 수업문화 요인 중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은 긍정적인 요인-‘수업자료 준비’ 요인과 ‘학생중심 수업’ 요인에서,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은 부정적인 요인-‘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과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8〉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관점을 토대로 나눈 집단별 수업문화의 차이

집단	수업문화											
	교사간 협력		평가활용 수업		수업자료 준비		수업 중 학생행동		학생중심 수업		소극적 수업방식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137)	4.08	0.49	3.62	0.59	3.64	0.40	2.74	0.60	3.74	0.43	3.00	0.46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 (73)	4.13	0.34	3.66	0.66	3.87	0.42	2.49	0.61	4.07	0.49	2.68	0.59
t	-0.80		-0.51		-4.04**		2.82**		-4.97**		4.32**	

* p < 0.05 ,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의 성향과 수업 문화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성향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가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조사한 결과,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이었다. 또한 각 교육과정 관점의 하위 요소에 대한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학습자, 사회에 대한 선호 경향은 전체 관점 경향과 일치하나, 교과지식에 대한 선호 경향은 해방적 관점, 해석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으로 전체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실태는 ‘교사 간 협력’, ‘학생 중심 수업’, ‘수업자료 준비’, ‘평가 활용 수업’ 등의 요인에서는 긍정적인 수업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소극적 수업방식’, ‘수업 중 학생행동’ 등의 요인에서는 부정적인 수업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즉,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다양한 평가 방식 활용,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강의식, 주입식, 암기식 수업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사 간 협력’ 요인, ‘수업자료 준비’ 요인, ‘수업 중 학생 행동’ 요인, ‘학생 중심 수업’ 요인,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 등 5개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넷째, 해석적 관점이나 해방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재개념주의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기술적 관점(전통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보다 학습자, 사회, 가정교과 지식 등 교육과정

구성 요인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과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의 수업문화는 4가지 수업문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수업문화의 경우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수업문화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이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보다 수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성향을 조사해 본 결과 해석적 관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해방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지만, 기술적 관점에 대한 점수가 기존의 연구보다 많이 낮아져서 기술적 관점과 해석적, 해방적 관점의 선호도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적 관점이었던데 반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방적 관점이 내재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이 일부 도입되어 교사들의 인식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은 재개념주의 관점으로 해방적 관점은 해석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 교사들에게 잘 정착되려면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 수업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강의식, 주입식, 암기식 수업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교사 중심의 수업 보다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교사들은 좋은 수업 참관이나 수업 자료 공유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업 개선을 위하여 동료 교사와의 자료 공유와 교류를 위한 가정과 교사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에 따른 수업문화요인에 대한 영향에서 기술적 관점 보다는 해석적 관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적 관점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선미(2008)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조사 대상 가정과 교사들 중 30% 정도만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평소에 실행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실제적인 이유는 후속 연구에서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관점을 토대로 나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과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 간의 수업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수업문화의 경우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수업문화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보다 교육과정 관점 분명한 집단이 수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과정 관점의 이론적 배경과 세 가지 가정과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창규 (2005). 초등학교 수업문화와 수업개선. **지방교육경영**, 9권, 59-98.
- 곽수란, 최형심 (2000). 교사가 인식한 학교문화 분석. **교육연구**, 13, 157-180.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기술·가정 교육과정**. 서울: (주)대한교과서.
- 기순임, 채정현 (1998).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견해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5), 187-201.
- 김미영 (2004).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ICT활용 수업의 실태와 인지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유태명 (1997). CAI와 토론 학습을 연계한 가정과 교수 학습 모형 개발-『청소년과 성』 단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221-236.
- 김민환 (1992). **교육과정 연구의 대안으로서 재개념주의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찬 (1995). 학교문화의 개념과 연구과제. **교육이론**, 9(1), 1-10.
- 김효순, 유태명 (1997). 남녀공통필수 과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중학교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에 의한 『가정』 교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33-48.
- 남윤진, 채정현 (2008).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과 관련 자기감학에 대한 수행실태.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9(2), 61-75.
- 류상희 (1999).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 변수.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1(2), 1-11.
- 류상희 (2000).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방향과 교수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8), 159-168.
- 박명주, 유태명 (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161-174.
- 박종률 (2007). 개선되어야 할 체육수업 문화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25-42
- 박태호 (2008). 개선해야 할 초등 국어 수업 문화와 교사대응. **청람어문교육**, 38, 7-36
- 백은희, 채정현 (1998). 가정과 교사의 Brown에 의해 분류된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 선호도-교육과정 모형을 결정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2), 91-103.
- 유태명 (2006).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8(4), 193-206.
- 유태명, 이수희 (2009).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 관점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실행 및 평가.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 21(1), 1-19.
- 유태명, 장혜경, 김주연, 김항아, 김효순 (2004). **실천적 가정과 수업 I**. 서울: 신광출판사.
- 이선미 (2008).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인지도 및 관심단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 (1999).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개념주의 관점에 기초한 통합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희 (2007). 선진국 가정과 교육과정 동향 및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경기도교육청 (2007).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자료집 (기술·가정)**, 23-38.
- 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교육 가치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219-232.
- 이정선 (2002). **초등학교 문화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성, 남궁지영 (2008). **교육연구방법과 SPSS활용 자료 분석**. 서울: 교학연구사.
- 이종이 (1997).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교육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인식과 관련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31-45.
- 임진영, 최지은 (2010). 한국 교사의 수업문화 탐색: 요인분석의 적용. **열린교육연구**, 18(2), 197-222.
- 채정현 (1996).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선호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33-49.
- 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기술·가정(실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1), 89-109.
- 홍재호 (1999). 학교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교육연구**, 15(2), 1-24.
- Baldwin, E. E. (1984).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Baldwin, E. E. (1989). A critiqu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 In *Alternative Modes of inquiry in Home economics Research*. Wisconsi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 rules for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Yoo, T. M. (1999). Quality of life from the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6(3), 200-202.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사가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과 수업문화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편의 표집 한 설문지 21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v. 1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정과 교사가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조사한 결과,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이었다. 또한 각 교육과정 관점의 하위 요소에 대한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학습자, 사회에 대한 선호 경향은 전체 관점 경향과 일치하나, 교과지식에 대한 선호 경향은 해방적 관점, 해석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으로 전체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실태는 ‘교사 간 협력’, ‘학생 중심 수업’, ‘수업자료 준비’, ‘평가 활용 수업’ 등의 요인에서는 긍정적인 수업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소극적 수업방식’, ‘수업 중 학생행동’ 등의 요인에서는 부정적인 수업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사 간 협력 요인, 수업자료 준비 요인, 수업 중 학생행동 요인, 학생 중심 수업 요인, 소극적 수업방식 요인 등 5개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넷째,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관점을 토대로 나눈 ‘교육과정 관점이 불분명한 집단’과 ‘교육과정 관점이 분명한 집단’의 수업문화는 4 가지 수업 문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11월 23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10일